

# 출근길 아카이브

; 같은 길. 다른 일상



201930346

박 해 경

## 1. 개요

‘퇴근하고 싶다. 비록 아직 출근 전이지만’

출근길 ; 일터로 근무하거나 나오는 길. 또는 그런 도중.

과거 자급자족 시대, 농업 시대에는 집 앞에 나가는 것이 나의 일터였고 생존수단의 터였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화 되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공간에서 벗어나 출근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판교, 동탄 등 탈서울화한 위성도시들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점점 더 먼 곳에서 출근하는 일명 장거리 통근러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출근시간의 지루함을 탈피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TV, 영화 등을 보거나 라디오, 노래를 듣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 그 예로, 애플 사의 에어팟이 처음 나왔을 때 걷는 중 하수구에 빠지고 다른 일을 하다가 사라지는 풍자 영상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또한 가격을 언급하며 아깝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 아침 출근길에는 많은 사람들 귀에 에어팟 등의 값비싼 무선 이어폰이 꽂혀 있으며 손잡이를 잡지 않아도 넘어지지 않을 공간에서도 눈과 귀와 손은 스마트폰 두고 있다.

이렇듯 매일 같은 출근길이지만 매일, 매년 상황은 변하고 달라지고 있다. 출근길, 출근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다르다. 그날의 기분, 컨디션에 따라 변하고 익숙한 일상이지만 다른 길을 가본다던가 하는 새로운 태도를 개척하기도 한다. 챗바퀴 도는 것 같아도 매일 다른 일상, 상황임을 현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 2. 키워드

출근길, 지옥철, 지옥버스, 월화수목금금금, 월화수목금토, 월요일, 커피수혈, 회색도시, 에어팟, 연착, 직장인, 아침출근, 지각, 프로통근러, 장거리출근, 교통체증, 서울교통

## 3. 범위와 목적

- 범위 : 아침 출근길에 촬영한 각종 사진, 영상
- 목적 : 출근길에 일어나는 각종 일상 기록, 매일 같은 출근길이지만 다양한 모습 기록화  
‘출근’이라는 행위에 대한 생각 고취

## 4. 영역별 수집대상

1영역	2영역	3영역
보다	지하철	서 있는 사람, 앉은 사람, 달리는 사람
	도보	자연, 하늘, 시장, 뛰는 직장인
듣다	지하철	지하철 안내방송
	자연	새소리
먹다	음료	손에 든 커피
	밥	대용식
걸음의 기록	걷다	
	뛰다	
일상속 다른일상	실수	지갑을 두고 옴. 휴대폰을 두고 옴.
	예상못한 일	지하철연착, 내릴 역을 지나침